

# 동네 책방 동네 도서관

(사)행복한아침독서는 '책과 도서관'을 통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기를 꿈꾸는 독서운동과 도서관 전문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행복한아침독서가 펴내는 『동네책방동네도서관』은 책과 서점과 도서관을 사랑하는 이들이 행복한 책 생태계를 꿈꾸며 소통하고 연대하는 나눔의 마당입니다.

## 교육의 나라, 사람이 자산인 나라 핀란드 도서관을 가다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는 2015년 10월 8일부터 17일까지 8박 10일 동안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도서관에 다녀왔다. 같이 떠난 선생님들은 도서관 살림을 훌륭하게 꾸리는 분들이라 북유럽 도서관을 탐방하면서 국내도서관과 북유럽도서관을 같이 배울 수 있었다.

핀란드는 650년간 스웨덴, 108년간 러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1917년 12월 6일 독립공화국을 선포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유럽의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으나 지금은 교육의 나라, 사람이 자산인 나라, 자유와 평등이 살아 있는 나라로 인정받는다.

핀란드에는 공공도서관 756관, 이동도서관 142관이 있다. 공공도서관은 지방정부에서 시립도서관을 두고 어린이, 음악, 미술 분야의 전문화된 분관도서관을 운영한다. 공공도서관끼리 연결망이 잘 되어 있어 원하는 책이 도서관에 없으면 상호대차 서비스로 자신이 원하는 도서관에서 책을 받아볼 수 있다.

탐방단은 헬싱키시와 탐페레시 시립도서관과 분관도서관을 방문했다. 헬싱키시립도서관인 파실라도서관, 찾아가는 헬싱키이동도서관, 이주자들을 위한 다국어도서관, 헬싱키음악전문도서관인 라이브러리10, 예술도서관인 리카르딩카톤도서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헬싱키대학교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탐페레시립도서관, 쇼핑몰에 있는 리라호티도서관, 학교와 성인교육센터와 같이 있는 메포스 샘플란드서관을 방문했다.



핀란드 공공도서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어제 이곳에 온 이주자들도 자유롭게 이용한다. 도서관은 이주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된 책을 얻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게다가 다국어도서관에서는 언어카페가 열리며, 차를 마시면서 핀란드 말을 배운다. 핀란드 말을 배우면서 나라의 정서를 이해하고, 어떻게 핀란드에서 생활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다. 정보은행은 15개 언어로 핀란드 기본정보와 생활안내를 한다. 외국인도

도서관 방문에 제한이 없다. 사전 예약 없이 방문한 도서관에서 사서들은 여느 이용자처럼 탐방단을 맞이했다.

핀란드 도서관을 방문할 때 교통수단은 트램, 버스, 지하철, 기차였다. 정류장에 내려 몇 분만 걸으면 도서관이 있었다. 사는 곳 2킬로미터 안에 대개 도서관이 있는 것이다. 더 멀리 사는 주민을 위해 이동도서관도 운영한다. 이동도서관 차량 내부에는 도서반납함, 여러 분야의 책, 신문, 잡지 등이 있다. 이동도서관은 오전에는 학교와 어린이집으로, 오후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독자가 있는 또 다른 곳으로 찾아가다. 여름에는 자전거 이동도서관이 축제장으로 달려간다. 그밖에도 타사, 병원, 교도소에 도서관이 있다. 일하러 가는 직장인들이나 쇼핑하러 가는 주민들을 위해 역이나 쇼핑몰에도 도서관이 있다. 장애나 질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메일이나 편지로 도서관에 책을 주문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사서가 집으로 책을 가져다준다.

어린이들은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관교육을 받고 어린이집으로 찾아온 이동도서관을 만난다. 학교와도 친밀하다. 모든 학생들에게 정보검색, 북토크, 도서관 이용교육, 전자자료 이용교육, 숙제도우미를 한다. 학교에서 도서관으로 찾아오거나 사서가 학교로 가기도 한다. 핀란드는 읽기교육을 중요시해서 학교와 도서관은 정보를 공유하며 아이들 교육에 힘쓴다. 예를 들면 헬싱키 시내학교와 헬싱키시립도서관이 연계한 KIRKOU는 아이들이 정보기술을 익히고 문학을 접할 수 있게 학교와 도서관이 협력하는 사업이다.

도서관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기관들과도 협력을 잘한다. 지역정보들을 모으고 안내하기에 새로 이사 온 사람에 도서관에 가면 마을 정보를 알 수 있다. 학교와 성인교육센터가 같이 있는 샘플란드서관은 성인교육센터에서 문화, 예술, 역사, 취미 관련 강좌가 열린다. 이곳은 책 전시, 저자와의 만남, 음악회와 같이 책으로 할 수 있는 일, 도서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핀란드 공공도서관은 책뿐만 아니라 만화, 미술, 음악, 영화,

게임, 컴퓨터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보트, 우산, 재봉틀을 빌려준다. 헬싱키 도시작업장에서는 3D프린터, 그래픽워크스테이션, 재봉틀과 배지 기계를 이용할 수 있다. 장비 이용법을 배우

서 자기만의 가방이나 티셔츠를 만든다. 음악, 미술에 전문화된 분관도서관은 자신의 영역에 집중한다. 음악도서관인 라이브러리10의 이용자 절반은 책을 빌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도서관 공간을 이용한다. 프로젝트와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으며 공연도 할 수 있다. 책만 좋아했던 사람은 이곳에서 음악과 예술을 만나고, 음악만 좋아했던 사람은 책을 만난다. 예술도서관인 리카르딩카톤도서관에는 곳곳에 그림, 조각, 사진 등 여러 분야의 예술 작품들이 많다. 전시 작품마다 주제가 있으며 층마다 전시공간이 있다. 예술도서관답게 예술 관련 책, 사진집이 많다.

도서관의 규모, 생김새, 중점적으로 하는 일은 저마다 달랐지만 그 안을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닮아 있다.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아주머니, 돋보기를 들고 신문을 한참 보는 할아버지, 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할머니, 햇빛이 잘 들어오는 의자에 앉아 음악을 듣는 청년, 아기를 업은 채 두 아이를 곁에 두고 책을 읽어주는 어머니, 이주학생 공부를 돕는 청년, 컴퓨터로 무언가 검색하는 아저씨, 사서에게 질문하는 청소년... 모두 도서관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편안해보였다. 편안함 속에서 사람과 책이,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 사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나 책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돕고,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게 이 어준다. 그러면 이용자들은 도서관에서 스스로 원하는 기술과 지식을 배우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자기 삶으로 풀어낸다.

박미애\_태백 철암도서관

모바일 앱 '행복한독서'

내 손안에 들어온 『동네책방동네도서관』

### 17세기 바로크 미술의 거장 루벤스의 생애와 작품을 다룬 책

미술사에서 가장 성공한 화가로 평가받는 루벤스는 전 유럽을 무대로 활약한 궁정 화가로, 현실의 삶에서 자신의 이상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책에는 <십자가 세우기> <파리스의 심판> <인동덩굴 나무 그늘> <삼손과 들릴라> 등 100여 점의 작품을 엄선해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또한 카라바조, 코레조, 반 다이크, 티치아노, 야콥 요르단스 등 루벤스와 영향을 주고받은 선후배 화가들의 작품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예술의 거울에 역사를 비춘 루벤스

노성두 글 | 192쪽 | 울컥러 | 12,000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21 미래엔 고객센터 1800-8890 <http://cafe.naver.com/iseum> 미래를 밝히는 힘 Mirae 아이세움

# 2016년 책동이·아침독서 추천도서 870권 발표

- 영·유아그림책 200권, 어린이책 420권, 청소년책 187권, 부모·교사용 63권

(사)행복한아침독서는 지난 2월 23일에 각급 도서관과 교육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선정하는 '2016년 책동이·아침독서 추천도서'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도서는 영·유아 그림책 200권, 어린이책 420권, 청소년책 187권, 부모·교사용 63권 등 모두 870권이다.

'2016년 책동이·아침독서 추천도서'는 2005년에 처음 선정하여 열한 번째로 발표하는 추천도서이다. (사)행복한아침독서의 추천도서 선정 작업은 각급 도서관의 수서 작업에 도움을 주고, 학생들에게 아침독서 시간에 읽으면 좋을 만한 책 정보를 주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추천도서 선정 작업은 독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적 의견도 적지 않기에 무척 조심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도서관 담당자들이 많은 양의 수서목록을 단기간에 작성하면서 수많은 신간도서들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독서운동단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서를 위한 참고 자료를 제시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추천도서목록에 대한 사서들과 교사들의 호응도 무척 높은 편이다. 따라서 추천도서 작업은 분명 현실적으로 유용한 측면이 있고, 실제로 신간도서 판매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매년 책동이·아침독서 추천도서에 보내주는 성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올해도 선정 작업을 꼼꼼하게 진행하였다.

2016년 책동이·아침독서 추천도서 선정 작업은 출판사의 신간도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신간도서를 소개하고 각 도서관이 수서 작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4년 11월 이후에 발간된 도서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다양한 신간도서가 독자들의 사랑을 받을 때 좋은 책들이 더 많이 출간되고 독서문화와 책 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각급 도서관과 교육기관, 그리고 독자들도 의식적으로 신간도서를 많이 구입하길 기대한다.

'2016년 책동이·아침독서 추천도서'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일러스트 방현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사)행복한아침독서의 정회원 교사들과 명예기자들에게 추천을 받았으며, 이를 참고하여 기자들과 선정위원들이 3개월에 걸쳐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였다. 추천도서 선정 작업은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매달 독서 정보지인 『동네책방동네도서관』, 『책동이』, 『초등아침독서』, 『중고등아침독서』를 발간하며 신간도서를 계속 검토하므로 실제로는 1년 내내 진행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추천도서 선정 기준은 책의 완성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더불어 독서력이 그다지 높지 않은 학생들도 즐겁게 볼 수 있는 책들을 선정하였다. 작품성이 비슷할 경우 외국책보다는 우리 책을 우선으로 선정하였다. 우리 현실과 정서를 반영한 우리 책이 독자들에게 더 쉽게 읽히고 제작과정에 들이는 공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우리 책 출간을 위해 노력하는 출판사를 응원하고 더 많은 우리 책 출간을 기대하는 마음도 담았다. 우리 책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과 의식적인 구매가 우리 출판문화와 책 생태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으리라 믿는다.

올해는 좀더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해 예년보다 선정도서의 수를 줄였다. 한편 규모가 작은 출판사 책들을 되도록 많이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출판의 다양성을 지지하고, 어려운 출판 환경에서 애쓰는 작은 출판사들을 응원하기 위함이다. 도서관과 서점에서 수서목록을 작성할 때 작은 출판사 책들도 많이 포함시켜주길 바란다.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서 출판사들의 매출이 눈에 띄는 정도로 줄어들어 지속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출판사들이 많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실제로 문을 닫거나 신간 출간을 대폭 줄이는 출판사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의 독서문화와 책 생태계 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 구성원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건전한 독서문화와 책 생태계

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국가에서는 각급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대폭 확충하고, 책을 사랑하는 독자들은 의식적으로 책 구입을 늘려갔으면 한다. 출판사와 도서관, 서점, 그리고 독자들이 연대해서 위기에 빠진 우리 독서문화와 책 생태계를 발전시키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엄청나게 쏟아지는 신간도서 중에서 일부 책들을 선정하기란 무척 힘든 일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수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감수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며 추천도서 선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좋은 책을 권하기 위해 오랜 시간 책을 검토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아무리 공들여 선정 작업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추천도서목록을 참고하되 사서와 교사, 부모님 등이 직접 책을 읽고 평가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참고로 학년 구분은 일정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개인의 관심사와 독서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서 읽기를 바란다.

해마다 발표되는 책동이·아침독서 추천도서목록은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각급 도서관에서 수서용 참고자료로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추천도서목록도 신간도서 정보가 필요한 도서관 사서나 교사, 학부모, 학생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엑셀로 정리된 '2016년 책동이·아침독서 추천도서' 목록 파일과 PDF 파일은 (사)행복한아침독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엑셀 파일에는 도서 구입 시 편리하도록 도서명, 출판사명, 저자 정보, 가격, 출간일자, ISBN 번호 등을 병기하였다.

'2016년 책동이·아침독서 추천도서'가 각급 도서관과 교사, 학부모,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상수\_ 선정위원장, (사)행복한아침독서 이사장

## 그림책으로 행복한 유치원 이야기



### 날마다 달마다 신나는 책놀이터

- 현장 교사가 직접 쓴 생생한 교육 사례
- 유치원 독서교육에 새로운 모델 제시
- 아이, 부모, 교사가 모두 행복한 이야기

이숙현, 이진우 지음 / 232쪽 / 값 15,000원

전화 031-955-7567 (사)행복한아침독서

어린이 문학 11

## 이어도 사나

"혹시 우리 엄마가 그 섬에 있지 않을까?"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전설의 섬, 이어도로 간 소년 동지 이야기

예로부터 제주 사람들은 이어도를 고달픈 이승의 삶 저 맞은편에 있는 낙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거친 제주 앞바다에 물질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동지'는 엄마도 이어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내 이어도에까지 간 동지의 이야기가 신화와 역사를 오가며 아름답고도 신비롭게 펼쳐집니다.

김영옥 글 | 최성아 그림 | 152쪽 | 10,000원

어린이작가정신 <어린이 문학> 시리즈  
문학의 즐거움과 감동이 가득한, 어린이를 위한 문학 시리즈입니다.

01 이 세상에 태어나길 참 잘했다 * 아침독서, 서울문화재단,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02 포그 매직 * 뉴베리 아너상	03 재커리 비버 우리 마을에 오다 * 내셔널 북 어워드, 호른 북스 어워드, 미국도서관협회	04 복실이네 가족사진 * 어린이문화진흥회	05 엄마 아빠 고향 이야기 * 책읽는교육사회실천회의, 아침독서	06 그 옛날 청계천 맑은 시내엔 * 책읽는교육사회실천회의, 아침독서
07 생명을 구한 사진 * 어린이문화진흥회	08 아빠를 보내는 일주일 * 서울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	09 밥 넬리 교수의 작은 원숭이 쇼티 * 아침독서, 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학교도서관저널	10 그곳에 한 아이가 있었다 * 천중호 가정법원판사 추천, 2015 신간		

# 책보다 사람을 먼저 끌어들이야 한다

요새 '대세 서점'이라는 북티크를 보며 궁금증이 일었다. 대체 지하에 있는 이 서점을 누가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 걸까. 답은 간단했다. 컬러링북에 색칠하고 SNS에 자랑하듯 비독자들이 디지털 속에 난 길을 따라 공간을 찾아오고 다시 나만의 특별한 공간으로 소개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었다. 서점보다 특이한 공간으로 어필하는 북티크를 방문했다.

## 독자가 없는 게 문제다

북티크의 문을 열면 맨 먼저 특이한 공간 때문에 탄성이 나온다. 천장이 높고 연극무대를 떠올리게 하는 계단이 있다. 계단 상부에는 회의 공간이 마치 신전처럼 올라앉아 있다. 얼핏 현대 산울림 소극장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면의 벽 중 한쪽에 서가가 세워져 있다. 서가를 따라가면 계단 반대편 숨어 있는 공간에 이른다.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따로 비치된 호젓한 공간이다. 공간 파악을 마치고 서가에 꽂힌 책들을 살펴보았다. 지금껏 기본 서점 중에 책이 가장 적은 곳이 있다면 북티크가 아닐까 싶다. 흥대 팽스북스나 상암동 북바이북과 달리 북티크는 서가를 통해 정체성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었다. 박종원 대표에게 북티크의 정체성에 대해 물기로 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박 대표를 만났다.



박종원 대표(왼쪽 세 번째)와 직원들

**한미화(이하 한)** : 인터넷에 검색하니 많은 사람들이 북티크에 다녀간 뒷이야기를 남겨 놓았더군요. 이렇게 유명한 서점을 저만 모르고 있었다 싶었습니다. 언제 문을 열었나요?

**박종원(이하 박)** : 2014년 12월에 시작했으니 1년 조금 넘었지요.

**한** : 상암동 북바이북은 팽스북스를 보고 서점을 해봐도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박 대표가 북티크를 시작한 계기가 있나요?

**박** : 웅진출판사에 근무하던 시절, 런던도서전에 갔다가 인근 서점을 둘러봤어요. 한국의 대형서점과 사뭇 다르더군요. 광고로 도배하지도 않았는데 서점이 운영되고 독자들이 찾아왔어요. 왜 이렇까 고민하다가 독자가 없는 게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후 독자를 위한 서비스를 만들고자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에 지원했어요. 책을 안 읽는 것도 사회적 문제니까요.(웃음) 3천만 원의 지원금과 컨설팅 등을 받아 창업을 했지요.

**한** : 콜라보 서점이라는 수식어를 지닌 북티크는 기존의 서점과는 결이 다른데요. 북티크란 어떤 곳인가요?

**박** : 북티크는 독자를 발굴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독

자와 비독자를 위한 서비스가 많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지요. 북티크의 최종 목표는 독자 발굴입니다. 독서를 장려한다며 무작정 책만 내세우면 거부감이 생겨요. 책이 아닌 다른 것들을 책과 결합해서 사람을 일단 끌어들이는 겁니다. 책과 연결된 경험을 만들어줘야 비독자를 독자로 만들 수 있어요. 비독자가 독자가 되고 독자가 독서모임 리더가 되고 이들이 다시 비독자를 끌어들이는 선순환이 이뤄지길 원해요.

**한** : 일종의 점조직이자 다단계 사업이네요.(웃음) 강연, 독서모임, 서점, 카페가 혼합된 색다른 공간 북티크의 초기 홍보는 어떻게 했나요?

**박** :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도 운영하고, 한국출판인회의에 글도 올리고, 출판사와 지인들에게 홍보도 했지요. 북콘서트 같은 강연 행사를 하고 모바일 홍보를 꾸준히 했어요.

**한** : 행사를 하면 근처 직장인들이 오나요? 대체 누가 오나요?

**박** : 각지에서 와요. 근처에 있는 혹은 지나다 들르는 경우는 없어요. 지하에 있는 북티크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으면 운영되기 어려워요. 여기 오는 분들은 북티크를 문화공간으로 생각해요.

## 외로워서 북 파티에 온다

**한** : 북티크의 한 축이 독서모임인데요. 어떻게 시작했나요?

**박** : 책을 접하려면 먼저 사람을 끌어들이야 하니 독서모임을 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독서모임 리더 경험이 있는 분을 소개받아 직원으로 채용했어요. 내부에서는 북클럽리더라고 부르는데, 북티크에서 직접 만든 독서모임이나 외부 독서모임을 관리하고 운영해요. 독서모임을 하고 싶어 하는 외부인에게도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을 돕기도 합니다. 또 독서모임을 운영할 리더 양성교육도 합니다. 독서모임은 특히 리더가 중요해요. 비독자를 위해 와인이나 맥주를 곁들이는 북 파티나 북 번개도 가져요. 독서 수준별로 다른 콘텐츠를 제공하자는 거지요. 책을 읽고 오지 않아도 상관없는 행사도 해요. 와서 읽으면 되니까요. 30분에서 1시간 안에 읽을 만한 책들을 골라 읽고 이야기하는 방식이죠. 비독자를 독자로 만들려면 책을 읽고 이야기해보는 경험이 소중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거지요.

**한** : 북 번개나 북 파티에 오는 사람들은 대개 젊은 층인가요?

**박** : 대개 20~30대고, 80퍼센트 정도가 혼자 와요. 친구랑 같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외로워서 독서모임에 오는 거예요.

**한** : 북티크에서는 일반 기업들의 대관행사도 하나요?



**박** : 기업에 북티크 공간을 대관해요. 사무실이 아닌 분위기 좋은 공간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거나 PPT를 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요. 천장이 높고, 강연장 구조인데 일반 공연장은 아니고 아늑하면서도 개성적이라서 공간이 예쁘다고 좋아해요.

**한** : 출판사는 북티크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박** : 직거래 하면 할인해드립니다. 북티크에서 자체 홍보를 하니 출판사 입장에서는 모객이 수월하지요. 유료행사를 하거나 책을 판매할 수도 있고요.

## 사람이 올 수 있는 서점이 되어야

**한** : 북티크는 서점인데 진열된 책이 적어요. 서가가 이렇게 비어 있는 서점은 처음입니다. 북티크에서 책 판매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박** : 매출에서 도서 비중은 10~20퍼센트 정도인데, 이는 북티크의 색깔을 찾는 과정이에요. 북티크는 비독자들이 책의 세계로 입문하는 서점이자 동시에 독서모임을 위한 서점이에요. 이 둘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서가를 만들려고 해요. 독서모임마다 서가를 배당하고 읽은 책을 소개하거나 비독자를 위한 재미있는 책을 소개하는 서가도 만들 생각입니다.

**한** : 북티크 같은 동네서점이 생기면서 서점을 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박** : 책만 파는 서점은 더 이상 어려운 거 같아요. 사람이 올 수 있는 서점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책으로 소통할 수 없다면 책만 깔아놓고 무작정 고객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으니, 오히려 자신이 좋아하는 책 100권만 진열하고 그 책을 통해 소통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요.

현재 북티크에는 박종원 대표 외에도 카페, 서점, 마케팅, 북클럽 담당 직원들이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새로운 서점의 모델을 보여준 박 대표에게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동네 서점의 전망은 밝은 건가요?” 하고 물었더니 “그래도 어렵지요”라는 답이 나왔다. 동네서점의 미래가 밝아지는 그 날까지, 이름 그대로 북티크가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란다.

한미화\_출판칼럼니스트, 『아이를 읽는다는 것』 저자

북티크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1-3 제이빌딩 B1  
02-6204-4774, www.booktique.kr

**BORN TO RUN**  
인류가 경험한 가장 위대한 질주

인류가 경험한 가장 위대한 질주 **본투런**  
**BORN TO RUN**  
크리스토퍼 맥두갈 지음 | 민영진 옮김 | 432쪽 | 18,000원

인간은 어떻게 지금의 인간이 되었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달리는 현자들이 전하는 달리기, 인간 그리고 세상에 대한 모든 것!

달리는 인간의 정점에 선 신비로운 부족 티라우마라와 세계 최고의 울트라러너들이 위대한 경주를 벌인다.  
중군 기자 출신인 저자가 생생히 추적한 그들의 트레일 위로 인간의 기나긴 진화 과정과 존재 이유,  
현대 문명의 좌표가 날날이 펼쳐진다.

★★★★★ 2009년 출간 이후 3백만 부 이상 판매!  
★★★★★ New York Times 베스트셀러 187주!  
★★★★★ Forbes Washington Post 올해의 책!  
★★★★★ Amazon 살아있는 동안 읽어야 할 책 100권!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  
피에르 바يار 지음 | 김병욱 옮김 | 238쪽 | 12,000원  
읽지 않은 책, 뒤적거린 책, 귀찮았던 책, 잊어버린 책... 독서란 무엇인가? 책은 왜,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독서와 비독서, 책과 독자의 경계를 넘나들며 독서에 대한 고장관념을 깨부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 책은 불완전한 독서와 비독서를 포함한 온갖 읽기 방식의 창조적 국면에 주목한다."  
\_오펜헤르트 에코

여름엔 읽어야 할 책

# 책과 문화가 어우러진 삼플란드서관



도서관의 시대다. 우리나라에도 이곳저곳 도서관이 많이 생겼고, 자랑할 만한 도서관들도 제법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다른 나라에 가서 도서관을 봐야 할까? 꼭 해외 도서관과 비교하면서 견학해야 할까? 이런 불편한 마음을 안고 북유럽도서관을 찾았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북유럽도서관을 찾아 나선 이유는 뭔지 모를 허전함이나 채우지 못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라.

북유럽도서관을 보는 순간 먼저 시각적으로 놀랐다. 도서관을 채우고 있는 색깔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공간에 대한 신뢰와 머무르고 싶은 정서적 공감을 주었다. 도서관 내 서가 배치나 동선에서 이용자를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너무 과장된 생각은 아닐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여러 도서관을 다니면서 그런 느낌은 점점 더 확고해졌다.

핀란드에 있는 삼플란드서관은 우리나라로 치면 분관의 작은 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규모가 아주 작지는 않다. 도서관은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위치해 있고 동네의 중심이 되고 있었다. 이곳도 주민들이 많이 찾는 주민 편의 시설 내에 자리 잡고 있다. 체육시설이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문화공간이 있는 복합시설의 한쪽에 도서관이 있다. 도서관은 이렇듯 접근성이 좋다. 도서관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위치다.

활짝 열려 있는 도서관 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청소년들이 부르는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와 깜짝 놀랐다. 그날이 도서관 개관기념일이라서 그 건물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늘 이용하는 도서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리는 도서관,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의자가 있었다. 소리 내어 읽어도 다른 사람에게 크게 들리지 않도록 의자 모양을 동그랗게 만들어 두었다. 유모차가 드나들기 쉽게 유모차 주차장이 준비된 곳, 두꺼운 옷은 벗어서 걸어두고 편히 책을 읽을 수 있는 곳, 그곳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있었다. 생일을 축하하며 도서관 축에서 간단한 다과를 준비해 오가는 사람들이 마시거나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아이들은 쿠키를 먹고 지팡이를 짚고 온 할머니도 차를 마시면서 책을 본다. 모든 세대가 어울려서 미소를 짓고 이야기를 나누는 도서관 풍경이었다.

우리를 안내하던 사서는 숙제를 하는 청소년들과 자연스럽게 정보를 주고받았다. 사서는 언제나 질문 받을 준비를 하고 도서관에 대기하고 있었다. 사서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중앙에서 사람들이 불편함은 없는지 궁금하거나 곤란한 점은 없는지 살피며 도서관을 지키고 있다. 사서에게 질문하면 답을 얻을 수 있고, 궁금한 것이 있다면 사서와 함께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신뢰가 있었다. 그들 사이에 도서관 문화가 이렇듯 존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삼플란드서관은 공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서가배치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어린이실이 따로 있거나 정기간행물실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선을 고려해 전체가 어우러지도록 한 공간에 약간의 칸을 구분해서 모든 자료실을 배치해 두었다. 어린이들을 배려한 집 모양의 공간은 아늑하고 그 안에는 도서관을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인형과 소꿉놀이 장난감 등이 준비되어 있었다. 놀랍게도 집 모양의 공간은 사방으로 열려서 다 열어도 무



대가 된다. 도서관 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열거나 작가와의 만남을 수시로 진행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책과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배려한 도서관, 누구나 친구가 되고 서로를 살피며 수 있는 도서관, 그 자연스럽게 편안한 분위기를 꼭 가져오고 싶었다.

유니버전은 『삐삐 룽스타킹』의 작가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작품을 주 콘셉트로 삼아 재현해 놓은 곳으로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스웨덴을 대표하는 어린이 문학가로 잘 알려진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은 어린 시절 자연 속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뛰어놀았고 그 시절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고백했다. 그곳은 그녀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 주인공들이 날아다니기도 하고,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옆집 친구가 되기도 한다.

그곳의 어린이들은 그 자체로 빛이 나고 있었다. 어린이들에게 화려하거나 첨단 공간을 제공하기보다는 소박하지만 이야기가 담백 담긴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작품 속 인물들을 만나면서 책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책이 되는 또 다른 책읽기의 현상이 그대로 느껴졌다.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새롭게 발굴된 어린이 작가들이 책을 읽어주고 작품을 발표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되면서 끊임없이 그 공간이 진화, 발전하고 있었다.

우리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 공간은 아직 미비하다. 이렇듯 이야기 공간이 꾸며져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듣고 경험하면서 자라기를 바란다.

최향숙\_고양 청소년책문화공간 갈갈갈 관장



사서와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정보를 주고받는다



유니버전 -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작품을 재현해 놓았다

## 『하자르 사전』의 뒤를 잇는 밀로라드 파비치의 대표작! 19개국 언어로 번역된 사랑의 대서사시!

각각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연인의 2세기에 걸친 사랑 이야기.  
두 연인은 시간의 바다를 건너 서로 이어진다.  
시대를 초월한 사랑은 결국 비극을 향해 치닫게 된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사랑의 일부이자 시작일 뿐이다.  
독자들은 레안드로스의 이야기나 헤로 이야기 가운데 어느 쪽을 먼저 읽어도 상관없다.  
두 연인의 길은 비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책 속에서 서로 뒤섞인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파비치만의 언어로 재구성된 『바람의 안쪽』은 독자들이 하여금 사랑의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는 경험을 안겨준다.

신국판 | 224쪽 | 12,000원

파비치는 전통적인 이야기 방식의 견고한 구조를 진실이 물 흐르듯 흐르다 서로 부딪치는 양상으로 해체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 자신만의 독특한 묘사 정치를 통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매우 뛰어난 우화적 역량을 소유하고 있다. 『뉴욕타임즈』

소설마다 실험적 형식을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한 파비치가 『바람의 안쪽』에선 가장 놀랍고도 쉽게 읽히는 소설을 보여주며 일단 손에 들면 책을 놓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신문사



### 바람의 안쪽

김동원 옮김  
밀로라드 파비치 지음

『하자르 사전』의 뒤를 잇는 밀로라드 파비치의 대표 소설!  
1991년 출간된 이후 19개국 언어로 번역!  
천재적인 상상력과 뛰어난 묘사가 돋보이는 사랑의 대서사시!

www.jigem.net 이리

# 시민 중심으로 변화, 발전하는 탐페레도서관과 라이브러리10

“Modern Libraries are moving—not for books but for people.”

핀란드 탐페레시립도서관 간담회에서 들었던 말이다.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이렇다. “현대의 도서관은 역동적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그것은 시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지 자료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탐페레도서관과 라이브러리10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도서관의 역동적인 변화·발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

독서문화를 이끄는 탐페레도서관은 인구 22만의 공업도시 탐페레시가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이다. 북유럽도서관들이 대체로 그러하듯이 모든 공공도서관들은 국립도서관-시립도서관-분관도서관 식으로, 전체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탐페레시립도서관 역시 여러 개의 분관들을 총괄·관리하는 중앙도서관인 셈이다. 게다가 학교도서관이 따로 없는 탐페레시 학교들의 독서교육과 교사연수,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으니 탐페레시립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은 막강하다. 또한 탐페레시 전체 인구가 22만 명인 점을 감안할 때, 시립도서관 전체의 연간 대출건수가 470만 건(1인당 대출건수 21.6건)인 것은, 세계 1위의 대출건수를 자랑한다는 핀란드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한다. 탐페레시민들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시민들이 아닐까 싶다.



어린이실 사서 책상 뒤로 보이는 다문화인형들

## 친자연적인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 지원

도서관은 외부에서 볼 때 뇌조(핀란드어로 metso)라는 새 모양으로 건축되어 있다. 시민들에게는 정식 이름보다 metso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니, 공간의 생김새부터 시민들이 친근하게 느끼는 것 같다. 돔 형태의 천장에서 햇빛이 들어와 아늑한 분위기를 풍긴다. 은은하고 낮은 조도를 유지하고, 부족한 조명은 열람실 책상 위의 개인 독서등으로 보충한다. 이는 햇빛이 적고 추운 북유럽 날씨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 친자연적인 환경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징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어린이실에는 보드게임 서가가 눈에 띄고 게임방, 컴퓨터방, 스튜디오 등이 있다. 이렇게 하면 어린이들의 독서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느냐고 질문했더니, 다양한 매체를 최대한 많이 서비스하는 것이 도서관의 역할이고 선택은 이용자의 몫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다양한 매체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접근을 존중하

는 도서관 측의 자신감과 이용자에게 대한 높은 신뢰가 놀라웠고, 높은 독서율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지닌 이용자들이 있는 이들 도서관이 부럽기도 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곳은 오디오 전용 의자가 있는 음악자료실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오디오북과 피아노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회의실, 미팅장소 등을 빌려주며 3D프린터 마이크로필름 등 개인이 구매하기 어려운 장비나 도구도 이용할 수 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노인들을 위해 지팡이도 빌려주고,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도 빌려준다. 도서관 측 설명에 따르면 2017년에 리모델링을 통해 더 많은 공간의 변모를 구상 중이다. 이를 테면 바퀴 달린 서가를 도입해서 열람실을 공연장으로도 활용할 생각이라고 한다.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도서관이 아낌없이 지원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또한 이민자들을 위해 80개국 언어로 된 다문화장서를 갖추고 있어 다양한 이민자들이 이용할 수 있고 언어교육도 꾸준히 진행한다. 어린이실 사서 책상 뒤에는



오디오 전용의자

손을 잡은 다양한 인종의 인형들이 장식되어 있다. 이 도서관과 사회가 지향하는 바가 다양한 시민들과의 나눔과 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 안정적 서비스를 기능게 하는 인력과 근무환경

탐방 전 연락이 오갈 때부터 탐페레도서관 관장님은 탐방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간담회에서도 풍부한 자료와 데이터로 우리를 놀라게 했다. 도서관 한 곳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핀란드 도서관의 현황을 소개하고, 현대 도서관의 변모까지 깊은 고민을 담은 브리핑 내용도 신선했다. 이런 도서관 일꾼들이 독서 강국 핀란드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도서관 일꾼들이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받쳐주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시 소속 공무원으로 파트타임도 연금이 나온다. 관장의 임기도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원하는 만큼 이어갈 수 있다. 이 도서관이 핀란드 도서관을 이끌 수 있는 까닭은 이런 환경 덕분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같은 도서관 일꾼으로서 무척 부러웠다.

라이브러리10은 헬싱키 시내에 있는 음악 전문도서관이다. 바쁜 젊은 세대들을 위해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 한복판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설립되었다고 한다. 발상도 참신하고 내부도 밝고 역동적이며 활기찬 느낌이 가득했다.



사서 책상 뒤로 보이는 전자기타

## 다양한 음반자료와 장비, 공간 지원

장르별 음악CD들과 LP판, 카세트 테이프 등 막대한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개인대상 음악안내자(Personal Music Trainer)라고 하는 사서들이 음악 자료 추천이나 장비 사용법 등을 안내해준다. 또한 전자기타와 그랜드피아노 등의 악기들과 3D프린터, 비디오테이프를 DVD로 전환시키는 기계, 태블릿 PC 등 여러 장비를 이용자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음악자료와 악기 장비 등을 사용해 보는 것 외에, 이 도서관을 방문한 미래의 음악인들은 작곡실과 녹음실도 이용할 수 있다. 음악듣기부터 녹음까지 음악활동의 모든 과정이 무료로 도서관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작곡 및 녹음을 마친 아마추어 예술가들은 영상, 음향, 조명이 갖춰진 공간에서 공연도 할 수 있다. 가난한 예술가 지망생들에게 꿈을 실현시켜주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음악 서비스 외에 재봉틀 등 생활도구도 갖춰져 있어서 시민들을 위한 배려가 느껴졌다. 어반 오피스 서비스라고 해서 직장인들이나 창업자들에게 사무공간으로도 내어주고 신문과 잡지도 종류별로 충분히 제공하고 있었다.

도서관이 무엇을 위한 공간인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 시민들의 문화 활동, 정보 취득, 의식 고양을 지원하는 것이 도서관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 현대의 도서관은 다양하게 변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탐페레도서관 관장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이들은 정부지원, 정책, 공간 구성, 인력, 시스템, 자료, 각성된 이용자 등 모든 면에서 그런 변화를 힘 있게 일구어내고 있었다. 단지 부러워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씩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 생각한다.

김자영\_서울 천일어린이도서관 웃는책 관장

**알쏭달쏭 개념 잡고 진짜 사회를 만나다!**

**미래 시민이 꼭 알아야 할, 가치 담은 사회 개념어 100가지**

**생각을 열어 주는 사회가치사전**

토론하는 미래 시민을 위한 사회 개념어 이야기

이 책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어를 골라, 기본 정의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보태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단편적인 개념과 지식 습득에 머물지 않고 삶의 지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로 관련된 사전과 서적을 찾지 않아도 이 책 한 권으로 개념과 정의를 습득하고, 우리 사회와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토론과 논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쓴이 구민정·국찬석·권재원·김병호·신동하 | 그림이 김영랑 | 값 16,000원

**내가 라면을 먹을 때**

세상은 어디나 풍요롭고 평화로울까요?  
세상의 아이들이 모두 우리처럼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평화 그림책.

하세기와 요시후미 지음 | 정지현 옮김 | 9,800원

**짧은 귀 토끼**

꼬마 토끼 동동이의 재기발랄한 콤플렉스 극복기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짧은 귀라는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

다원시 글 | 탕탕 그림 | 심유심 옮김 | 10,000원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112-6 3층 MAIL : whalestory3@naver.com TEL : 02-2634-7864 FAX : 02-2634-7865

# 서가 편집의 고민과 즐거움



‘마케팅’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의 상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급적 많이 판매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한다. 하나의 상품인 책은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거나 적어도 자신에게 적합해 보이는 하나 이상의 마케팅 전략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최근 오프라인 서점에서 마케팅보다 빈번하게 쓰이는 용어가 ‘큐레이션(Curation)’이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라는 직업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 단어가 생경하게도 요즘 오프라인 서점에서 종종 언급되고 있다. 이는 서점을 둘러싼 사람들의 욕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르겠다.

온라인 서점과 비교했을 때 오프라인 서점만이 가진 가장 뚜렷한 특징은 물질로서의 책을 진열하여 하나의 볼거리를 연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첫 번째 문제는 대부분의 오프라인 서점들이 피할 수 없는 한정된 진열 공간과 출간되는 신간의 양 차이에서 비롯되는 어긋남이라고 생각한다. 매일 쏟아지는 비슷한 제목과 생김새의 수많은 책들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여 진열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보다 많은 소비자(독자)들이 베스트셀러 책들만으로는 더 이상 만족스러운 독서 경험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베스트셀러의 결정 과정이나 그 경로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독서 취향에 부합하거나 그것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책’과의 만남을 갈구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가 오프라인 서점을 큐레이션이라는 용어 앞으로 소환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서가를 편집하는 능력, 책을 편집하여 진열하는 능력이 곧 오프라인 서점의 생존과 무관하지 않은 일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든 우리는 현재 큐레이션이라는 용어와 그것이 환기시키는 효과들 앞에 속수무책으로 초대되어 버렸다는 게 필자가 인식하는 현실이다.

## 책을 편집하여 진열하는 행위

책의 실제 큐레이션, ‘편집 진열’과 관련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정답이나 이렇다 할 좋은 방법이 없기도 하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한 개인이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진열하는 사람의 의견이 개입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즉 객관적으로 보이는 서가의 분류에도 일종의 견해나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각 서점마다 책 분류 체계가 조금씩 다르다. 또한 아무리 세세하게 분류하려고 해도 거기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살아남거나 그렇지 못하여 제외되는 특정

한 관점들이 어쩔 수 없이 생겨난다. 극단적으로 어떤 책들은 분류 행위의 작동 자체를 중지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책의 사소한 분류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하는 문제 앞에 직면해 있다. 넓은 의미에서 큐레이션, 즉 책을 편집하여 진열하는 행위는 사실상 늘 존재해 왔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것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와 근래 여러 동네 서점들에서 볼 수 있듯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 동아서점의 진열 사례

### 1. 새로운 카테고리 책 묶기

동아서점은 종종 비슷한 주제 아래에서 여러 책들을 묶어서 진열하곤 한다. 책들 각각의 매력도 중요하겠지만, 그 고유성이라는 것이 때론 다른 책들과의 차이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나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삶’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어서 진열한 책들은 고객들의 반응이 좋아서 수개월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소 모호한 카테고리임에도 불구하고 ‘나무’ ‘숲’ ‘식물’ 등의 단어들이 환기시키는 생명력이나 온화한 매력과 개별 책들 특유의 매력이 더해져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특정한 문제를 다루는 여러 가지 관점의 책들을 비교하여 진열하면 재미있다. ‘사랑’ ‘선과 악’ 등 삶의 본질적인 층위에서 고전적으로 다루지는 문제들부터 ‘가난’ ‘학교’ ‘일자리’ 등 현실 사회에서 몸으로 부딪히는 문제들까지, 같은 문제를 다루지만 서로 다른 관점의 책들이 많아서 편집 진열에 용이하다. 특정 시기에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인 경우에는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해당 문제를 다룬 책들이 함께 출간되는 경우가 잦아서, 이 책들을 엮어서 기획전을 만드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 2. ‘타인의 취향’ 엮이기

작년에 서울 망원동에 위치한 ‘책방 만일’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구경하다가, 우연히 책방지기가 책방을 찾는 고객들이 주문한 책 목록을 정리하여 게재한 글을 봤다. 엄선된 책들을 판매하는 공간이라 그



김영건\_속초 동아서점 매장관리팀장

런지 목록에 포함된 책들도 좋았지만 그보다 책방을 찾는 손님들이 주문한 책들을 하나의 목록으로 엮는다는 발상 자체가 신선하게 느껴졌다.

한동안 이런 발상에 착안하여 작은 코너를 마련해보자고 어슴푸레 생각만 해오다 작년 말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동아서점을 찾는 고객들이 1년간 주문했던 책들 중 스무 권 정도를 선별하여 진열하기로 했다. 상위 0.1%의 독자층 같은 소수 정예(?) 고객들의 독서 목록에 늘 감탄을 금치 못하던 와중에, 보다 많은 분들이 필자처럼 타인의 독서 취향에서 배울 수 있다면 뜻깊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현재 ‘타인의 취향’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스무 권 남짓의 책들을 추려서 약 두 달간 진열 중이다.

타인의 취향을 진행하면서 해당 책을 주문한 고객들에게 직접 책을 소개하는 추천글 작성을 부탁드렸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 코너에 진정성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감사하게도 무려 열 분이나 작성해 주었다. 추천글은 흰 도화지에 검정 글씨로 출력하여, 길이에 맞게 도화지를 오려서 책 근처에 진열했다.

서점에 오는 손님들이 ‘타인의 취향’ 코너 앞에서 서서 한참 동안 책 추천글과 책들을 살펴보는 걸 바라볼 때면 꼭 책을 구매하지 않아도 뿌듯하고 고맙다. 베스트셀러나 일반적으로 널리 소개되는 책들을 진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진열된 책들이 쓸쓸히 판매될 때마다 ‘출판사-서점-독자’의 네트워크 속에서 작게나마 제 역할을 한 것 같다는 뿌듯함도 느낀 기획이었다. 특히 『A가 X에게』(열화당), 『글쓰기의 최전선』(메멘토), 『자연스러운 건축』(안그래픽스) 등이 좋은 판매 성과를 거두었다.

## 한 권의 책이 마땅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때론 책방에서 책을 진열하는 일에 무얼 이렇게 심각하게 굴까 새삼스러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어찌 보면 책들은 그저 책들일 뿐이니가. 하지만 그저 책일 뿐인 그 책들을 대체 이 세상 어디에 놓을 것인가, 그것이 어느 자리에 놓여 있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를 이처럼 끝나지 않는 고민 속으로 끌고 간다. 결국 책을 편집하여 진열한다는 것은 이처럼 한 권의 책이 자신의 마땅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끔은 한 권의 책을 놓은 자리 뒤에 딱 그만큼의 세상이 하나 포개져 있는 것 같은 환상을 보곤 한다.



**내가 앞에 설래!**  
세상에서 가장 멋진 친구가 되는 법!  
가장 덩치가 큰 털보송이 레옹과 작은 토끼 레미. 그리고 내가 함께 걸어요. 모두 "내가 앞에 설래!"라고 말하는 세 친구가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나딘 브랭-코즈 글 | 올리비에 탈레크 그림 | 박정연 옮김 | 11,000원



**소중한 것을 지키는 용기**  
소녀의 소중한 개 해링턴은 어디로 가 버린 것일까요?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날이면 소녀는 커다란 집에 혼자 있었어요. 그런 날이면 늑대 해링턴이 항상 소녀를 지켜 주었지요. 그런데 그날은 해링턴이 보이지 않았어요.  
인그리드 사베르 글 | 다니 토랑 그림 | 박정연 옮김 | 11,000원



**공부 없는 나라**  
말썹꾸러기 영훈이가 꿈꾸는 '공부 없는 나라'  
"학교와 학원을 모두 없앤다고?"  
'공부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가 선생님께서 혼나고, 아이들 사이에서는 영웅이 되었지만... 정말 그런 나라가 있구나!  
"말도 안 돼!"  
조한서 글 | 장은경 그림 | 11,000원

## 두려움을 극복하는 '직면'의 힘

## 시골 할머니에게 배운 삶의 지혜



**어둠을 무서워하는 꼬마 박쥐**  
G. 바게너 글 / E. 우르베루야가 그림 / 최문정 옮김 / 80쪽 / 8,000원 / 비룡소



용감하게 무서움에 맞서서 무서움을 똑바로 바라봐야 해. 그러면 어둠을 무서워하는 마음은 점점 작아지게 될 거야! - 『어둠을 무서워하는 꼬마 박쥐』 중에서

어둠을 무서워하는 꼬마박쥐가 있어요. 박쥐가 어둠을 무서워하다니! 자고로 박쥐는 동굴 속 어둠에 익숙한 게 당연한데 말이지요. 꼬마박쥐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에도 화들짝 놀라지요. 어두운 그림자가 꼭 유령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주위 박쥐들의 놀림을 받으며 혼자 된 꼬마박쥐는 용감한 소녀 리자를 만나게 돼요. 리자는 꼬마박쥐 손에 손전등을 쥐어주더니 제일 어두운 구석으로 가라고 말하지요. 그곳에서 똑바로 유령을 바라보라고요. 무서워서 이가 덜덜 떨릴 지경이었지만, 꼬마박쥐는 가장 어두운 방구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다가갔어요. "용기를 내자. 용기를 내자!" 계속 중얼거리면서요. 그러자 벽에 비친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두려움은 늘 상상 속에서 부풀려지곤 했어요. 혹시나 괴물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어린 시절 구석진 다락방처럼요. 하지만 문을 열고 막상 다락방 안에 들어가면 손때 묻은 옛날 사진첩과 녹슬어버린 잡동사니만 있을 뿐, 두려움은 사진첩 속 빛바랜 사진들처럼 내 안의 일부로 그동안 늘 나와 동행했던 거지요. 알고 보면 두려움은 낯설고 커다란 감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직면의 힘 아닐까요? 두려워하는 무언가를 회피하지 않고 바라볼 때 굳게 닫힌 벽장문이 열리듯, 직면한다는 것은 스스로 어둠에 더는 압도되지 않겠다는 선언인지도 몰라요. 괴물 같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들어내는 지난한 과정 말이에요.

아마도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직면한다는 것은 퍼즐 조각으로 이루어진 큰 그림을 보듯, 스스로를 바라보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절망스러운 현실의 이면에 숨어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해내는 힘이겠지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둠이 삶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작은 조각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이기도 하고요.

역설적인 진실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꼬마박쥐가 손전등을 가지고 가장 어두운 구석을 찾아들어 갔던 것처럼, 리자가 두려움에 떠는 꼬마박쥐에게 "용감하게 무서움에 맞서서 무서움을 똑바로 바라봐야 해. 그러면 어둠을 무서워하는 마음은 점점 작아지게 될 거야!" 라고 말해준 것처럼요.



삶의 가장 어두운 방구석으로 천천히 다가가다 보면, 내 안에서 소리가 들릴 거예요. "용기를 내자! 용기를 내자!" 저 혼자 발화되어 어느새 스스로 빛나는 주문이 되어버리는 소리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 외울수록 마음속 빛의 자리가 점점 넓어지는 신기한 주문이랍니다.

윤정선 \_동화작가, 독서치료사, 『조금 다르면 어때?』 저자



**할머니 탐구 생활**  
정청라 글 / 임종진 사진 / 272쪽 / 15,000원 / 산티

책은 이 가족이 시골에서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을 담담하게 그려 보인다. 어느 시골처럼 이 마을에도 할머니들이 많다. 할아버지 없이 혼자 살아가는 할머니들이다. 자연히 이 책이 보여주는 시골살이에서는 할머니들이 주인공일 수밖에 없다. 도시에선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몰라도 사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시골에선 이웃 사이에 자주 얼굴을 부딪치게 돼 있고, 서로 상의하고 도움을 주고받아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농사 일이 그렇고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일이 그러하며, 논밭을 망가뜨리고 가족을 해치는 산짐승이나 병충해에 맞서는 일이 그러하다. 갑자기 가족 가운데 환자가 생겼을 때 응급처치를 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시골 할머니들은 이 모든 일에 도가 튼 분들이다. 이 책은 이런 할머니들에서 얻어낸 지혜로 시골살이에 익숙해지는 과정과 할머니들이 지닌 생명력에 기대어 자연에서 힘과 용기를 한껏 얻는 일에 관한 이야기이다. 할머니들과 함께 고사리를 꺾으러 산에 오르고 메주와 시래기를 만드는 이야기도 무척 재미있고, 할머니들이 강아지들을 돌보고 정성을 다해 꽃을 가꾸는 이야기는 가슴을 훈훈하게 만든다. 저자가 말했듯이 모든 할머니는 한때 아이였고 아가씨였으며, 모든 아이와 아가씨는 언젠가 할머니가 된다. 이 책에 나오는 할머니들을 보면 나이 들어 할머니가 되는 일은 비극이 아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더욱 지혜롭고 강인해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저자는 줄곧 이런 마음으로 이웃 할머니들을 이해하려고 하며 먼저 할머니들에게 다가가려고 애쓴다. 그래서 책 어디에서나 다정하고 부드러운 눈길과 속삭임이 넘쳐난다. (에세이, 일반)



원재길 \_시인, 소설가, 『시골 극장』 저자

도토리숲 동시조 모음 06

**치킨이 겁이다**

김윤정 시인의 동시조를 읽다보면 참신하고 아무진 시어들이 이미지가 되어 통통 튀어 오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감각을 두루 살핀 시인의 시선이 고스란히 드러나며, 일상 속 사소한 것들에서 낯설음을 발견하려는 열린 마음과 꾸밈없는 솔직함으로 참신한 동시조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 유성규(시조시인)

김윤정 동시조 / 이지연 그림 / 값 10,000원

도토리숲 전화 070-8879-5026 메일 dotoribook@naver.com 블로그 http://dotoribook.blog.me

노란돼지 창작그림책 35 \_ 생활습관(매, 충치, 간식)

**사탕 괴물**

글 마우 | 그림 마우 | 36쪽 | 양장제본  
정가 12,000원

**떼쟁이, 달콤쟁이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아이들에게 사탕괴물을 소개하세요.  
"1, 2, 3... 덩동쟁! 사탕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사탕을 달라고 떼를 쓰는 우리 아이, 올바른 생활습관을 익힐 수 있을까요? "1, 2, 3... 덩동쟁! 사탕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주인공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두려워도 하고 안심하기도 하며 정신없이 이야기에 빠지다 보면, 이야기 끝 무렵에는 나도 모르게 사탕을 멀리하게 되는 또 다른 자신을 책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도서출판 노란돼지 | 황정임 | books@yellowpig.co.kr | 전화: 031) 942-5379 | 팩스: 031) 942-5378

한국인이면 꼭 읽어야 하는 최고의 고전문학!!

**삼국유사**

어디까지 읽어 봤니?

나무클래식 06

**방대한 이야기들이 술술 읽힌다고?**

우리 신화 이야기, 수수께끼 풀이, 대단한 인물들이 힘과 지혜를 겨루는 이야기 등 열가지 주제로 단숨에 읽는 『삼국유사』 이야기

이강영 글 | 김이랑 그림 | 220쪽 | 값 13,000원

나무출판사

**유아** 수직으로 펼쳐 보는 거대 도시  
클레아 디외도네 글·그림 / 이주희 옮김 / 34쪽 / 25,000원 / 밝은미래

웅장하고 아름다운 거대 도시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는 이야기로 돌돌 말아 접혀 있는 그림을 길게 펼쳐볼 수 있는 폴딩북이다. 거대 도시에 방문한 손님이 정원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동물원에서 동물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그림 속에서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



**어린이** 배가 된 도서관  
플로랑스 티나르 글 / 이노루 그림 / 김희정 옮김 / 268쪽 / 11,000원 / 책읽는곰

어느 날 알 수 없는 이유로 도서관이 바다 한복판으로 이동한다. 도서관에 있던 학생과 선생님들은 부족한 것투성이인 상황에서 책을 읽으며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책을 통해 부쩍 성장한 아이들을 통해 도서관과 책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청소년** 소년이어, 요리하라!  
김정연 외 10인 지음 / 224쪽 / 13,500원 / 우리학교

만화가, 소설가, 시인, 영화감독 등 열한 명의 저자들이 이 소년들에게 음식을 만들어보길 권한다. 저자들은 각각 한 가지 음식을 소개하며 자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애호박전, 수육, 알리오 올리오, 요거트 등 다양한 음식과 얽힌 이야기를 통해 어른이 되는 의미를 생각해보게 한다.



**나는 우리 집 왕**  
마르타 알테스 글·그림 / 노은정 옮김 / 32쪽 / 9,800원 / 사파리

집에서 사랑받으며 왕처럼 지내던 고양이 집에 개가 들어온다. 성가시고 지저분한 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고양이는 개를 미워한다. 고양이는 개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꿈아, 놀자!**  
조리 존 글 / 벤지 데이비스 그림 / 이순영 옮김 / 40쪽 / 15,000원 / 북곰

오리는 이웃집에 사는 꿈에게 자꾸 나가서 놀라고 한다. 편하게 집에서 쉬고 싶은 꿈은 오리가 귀찮기만 하다.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를 위하는 꿈과 오리 마음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

**아프리카 초콜릿**  
장선환 글·그림 / 44쪽 / 12,000원 / 창비

아프리카 초원의 동물들을 촬영하러 간 사람들이 무심코 초콜릿을 떨어뜨린다. 근처에 있던 쥐가 초콜릿을 맛보려는 순간 기린이 빼앗는데... 누가 초콜릿을 차지하게 될까?

**노도새**  
김하루 글 / 김동성 그림 / 48쪽 / 13,000원 / 우리아이들

국립국악박물관에 있는 전통악기 노도에 관한 그림책이다. 몸이 불편한 동생과 움직이는 못하는 노도새가 겹쳐져 여운을 남긴다. 노도에서 벗어나 날아가는 꿈을 이룬 새의 모습에서 희망이 느껴진다.

**힐링 썰매**  
조은 글 / 김세현 그림 / 84쪽 / 15,000원 / 문학과지성사

추운 겨울밤 선비 이경전 할아버지와 친구들은 공룡 언 한강 위에서 썰매를 탄다. 썰매 위에서 어린이처럼 좋아하고 서로 시를 읊으며 즐거워하는 할아버지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열세 살, 불안해도 괜찮아**  
장희정, 송은하 글 / 김예슬 그림 / 정주연 사진 / 152쪽 / 11,000원 / 스킨

새 학기, 2차 성적, 시험 성적, 외모 비교 등 사춘기 아이들이 여러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을 이야기 형식으로 전한다. 불안은 나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새로운 생각은 받아들이는 힘에서 온다**  
김용택 지음 / 160쪽 / 10,000원 / 샘터

시골 작은 마을에서 살며 아이들을 가르친 김용택 시인이 청소년들에게 생각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야기하듯 풀어나간 글을 통해 시인의 삶과 가치관을 배울 수 있다.

**3색볼펜 읽기 공부법**  
사ито 다카시 지음 / 류두진 옮김 / 232쪽 / 12,000원 / 중앙북스

대체로 중요한 곳에는 파란색, 매우 중요한 곳에는 빨간색, 자신에게 재미있으면 초록색 볼펜을 그으며 읽는 독서법을 소개한다. 볼펜 색깔을 바꿀 때 나는 딸깍 소리마저 뇌를 자극한다는 견해가 재미있다.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김영란 글 / 어진선 그림 / 280쪽 / 15,000원 / 풀빛

우리나라 사법 사상 최초 여성 대법관인 저자가 독서 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토대로 법의 기원과 원리, 법에 관한 해석과 논쟁들을 풀어냈다. 법 이야기를 문학과 연결하여 이해를 돕는다.

**문학** 라플라스의 마녀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 양윤옥 옮김 / 524쪽 / 14,800원 / 현대문학

예측 능력을 소재로 라플라스 이론, 나비에 스트로크 방정식 같은 물리학과 수리학, 뇌의학, SF, 황화수소를 이용한 범죄 사건을 결합해 만든 저자 히가시노 게이고의 데뷔 30주년 기념작. 주인공들의 관계와 사건의 줄기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치밀한 구성으로 긴장감을 주고 흡인력이 있다.



**인문** 거품예찬  
최재천 지음 / 304쪽 / 13,000원 / 문학과지성사

현대사회에서 거품과 잉여는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되지만 저자는 "진화의 기본은 거품"이라고 이야기한다. 남들과는 다른 시선과 통찰력으로 진화와 생명, 인간과 동물, 환경과 생태 등 다양한 사회 현상과 문제들을 꿰뚫어 보며, 지나치기 쉽고 작은 것들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일깨워준다.



**교양** 날마다 달마다 신나는 책놀이터  
이숙현, 이진우 지음 / 232쪽 / 15,000원 / (사)행복한아침독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두 저자가 지난 10년 동안 그림책을 활용하여 독서교육을 해온 이야기를 담았다. 『책동이』에 연재한 '날마다 그림책' '달마다 그림책'을 포함하여 유치원 독서교육 이야기와 유치원 내 별벌어린이 도서관에서 벌어진 생생한 그림책 이야기가 가득하다.



**빨강의 자서전**  
앤 카슨 지음 / 민승남 옮김 / 256쪽 / 12,000원 / 한겨레출판

빨강 날개를 달고 태어난 섬세하고 감성적인 아이 게리온의 성장과정을 보여주며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 헤라클레스가 죽인 괴물 게리온의 입장에서 쓴 소설로 영웅담을 뒤집어본다.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헤민 글 / 이웅건 그림 / 296쪽 / 14,800원 / 수오서재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해온 헤민 스님의 신간. 주변이 시끄러울수록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스스로를 치유하는 힘을 얻게 된다고 다정하면서도 힘 있게 이야기한다.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살아보기**  
김남희 지음 / 396쪽 / 15,800원 / 웅진지식하우스

여행가인 저자가 발리, 치앙마이, 라오스, 스리랑카에서 200일 동안 책 읽고 글 쓰고 산책하며 '천천히' 삶을 실천한 이야기. 잠깐 머무를 때는 알지 못하는 남쪽 나라의 소박한 일상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을 만나러 간다 런던**  
마리나 불만멘델슨 지음 / 장혜경 옮김 / 176쪽 / 12,000원 / 터치아트

엘리자베스 1세, 버지니아 울프, 알렉산더 맥켄 등 런던의 2천년 역사 속 주요 인물들의 삶과 업적을 담았다. 인물과 관련된 런던 명소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일독일행 독서법**  
유근용 지음 / 232쪽 / 13,800원 / 북로그컴퍼니

부모의 이혼과 계모의 학대로 게임 중독에 빠져 책과 거리가 멀었던 저자가 군대에서 처음 책을 읽고 책 읽는 힘을 깨닫는다. 하루 한 권 책 읽기 습관과 시간 관리법을 소개한다.

**마음의 사생활**  
김병수 지음 / 336쪽 / 15,000원 / 인물과사상사

의지력을 믿지 마라, 다중인격자가 돼라, 스트레스는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등 심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려준다. 심리를 바르게 이해하여 마음과 정신을 제대로 돌볼 수 있도록 돕는다.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김정선 지음 / 204쪽 / 12,000원 / 유유

20년 동안 전문 교정자로 일해온 저자가 글을 쓸 때 반복적으로 쓰는 어색한 표현, 주의해야 할 표현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직접 겪은 에피소드를 소설 형식으로 함께 담아 흥미를 더했다.

**아이 1학년 엄마 1학년**  
이호분, 남정희 지음 / 256쪽 / 14,000원 / 길벗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를 둔 부모가 알아야 할 아이의 정서와 심리 발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공부습관을 길러주는 방법을 소개한다. 부모들의 실제 고민을 해결할 방안을 담아 유익하다.

**내 삶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들**  
푸페이롱 지음 / 정세경 옮김 / 264쪽 / 13,000원 / 추수밭

철학교수인 저자가 강연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한 교양서. 안희의 즐거움, 증상의 부지런함, 자로의 솔직한 등 공자의 『논어』 속 핵심 사상을 제자 열 명의 일화로 쉽게 설명했다.

다정해서 다정한 다정 씨

2015 영국 '테이트 모던 컬렉션' 선정 아티스트 윤석남, 윤석남의 오리지널 드로잉 32점과 삶의 이야기들 한 권의 아름다운 책으로 소장하는 기쁨

백만 번은 전쟁한 것 같은 남편과 딸, 명랑 어머니 원정숙, 어느 날 마주친 남부터미널 할머니와 밥그릇으로 미술사를 꿈꾸던 아줌마까지, 세상의 평범한 다정 씨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멋과 맛!

32점의 그림 속에 담긴 슬프면서 우습고 친진하면서 깊은 이야기들.

윤석남 글·그림 | 한성옥 기획·구성  
값 18,000원

사계절 (주)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 : www.sakyejul.co.kr 인스타그램 : instagram.com/sakyejul\_picturebook 페이스북 : facebook.com/sakyejulpicture 트위터 : twitter.com/sakyejul